

2026.08.31.

VOL.604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글로벌 백신 R&D 거버넌스 재정비:
CEPI 발생 대응 원칙과
100일 미션 가속화**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글로벌 백신 R&D 거버넌스 재정비: CEPI 발생 대응 원칙과 100일 미션 가속화

1

02

무역통상

덴마크, 제약 수출 호조로 2026년 GDP 성장 전망 3.7%로 상향

5

미국, 중소 바이오텍 대상 메디케이드 최혜국 대우 약가 2차 협정 추진

5

미국 상원의원, 연방 의료자금으로 중국산 의료기기 구매 금지 촉구

5

인도, 대일 무역 불균형 심화 속 제약 규제 장벽 해소 촉구

6

인도 제약사, 미국 제네릭의약품 관세 현실화 가능성 낮다고 판단

6

스위스-중국, FTA 개정 협상 타결 ... 스위스 수출품 99.8% 무관세 추진

6

미국,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과잉생산 관세 7.5% 부과 검토

7

캐나다, 미국 무역 협상 중단 및 대미 보복 관세 부과 선언

7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제약 분야 협력 확대 논의

7

03

의료 인공지능

스탠퍼드대학 심혈관연구소, 인체 유래 모델·AI 통합으로 신약 개발 실패율 감축 방안 제시

8

예일대 의과대학, 임상·기술 잇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 AI 보건과학 석사 과정 신설

8

오하이오주립대학, AI 신약 발굴 이니셔티브 '백아이 바이오런치' 출범

9

오라클 헬스, AI 기반 '환자 포털' 미국 정식 출시

9

엔트그룹, 의료진용 AI 워크스테이션 'AQ 포 닥터' 출시

10

미국 병원, AI 스케줄링 시스템으로 인력 배치 및 수술실 운영 개선

10

애보트-구글 헬스, 연속혈당측정기와 AI를 결합한 대사건강 관리 협력 체결

11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FDA 허가 1,500건 돌파 ... 규제 경로 재편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글로벌 신약 개발 업계, LC-MS 워크플로 자동화로 분석 처리량 확대	12
글로벌 제약사, 수술 후 통증 치료제 52건 개발 ... 비마약성 전환 가속	12
미국 상원,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개혁 법안 '서스테인 340B' 발의	13
일라이 릴리,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 유럽 최초 영국 허가	13
올랜도 헬스, 수술 중 출혈량 확인하는 의료기기 '블리드ID 배큘 패드' 상용화	14
완더크래프트, 자가균형 개인용 외골격 '이브' FDA 허가 획득	14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보청 기능 FDA 허가 획득	15
리비브, 2030년 뷰티 트렌드 보고서 발간 ... AI 진단 및 바이오텍 부상	15

05

의료서비스

베트남 맘안종합병원, 미국 대비 10분의 1 비용에 외국인 암 환자 유치	16
튀르키예 레마 덴탈 클리닉, 외국인 환자 프로그램 확대로 프리미엄 임플란트 수요 대응	16
글로벌 의료관광, 비용 경쟁에서 진단 속도 및 환자 신뢰 관리로 변화	17
인도 릴라바티 병원, 카자흐스탄에 첫 글로벌 거점 개설해 의료관광 확대	17
미국 텔레헬스 기업 민트, 레짓스크립트 인증 획득한 GLP-1 비만 치료 플랫폼 출시	18
중국, 외국인 환자 유입 급증하며 의료관광 허브로 주목 ... 광저우 암 치료 중심지로 성장	18
싱가포르 OUE 헬스케어, 중국 선전에 230병상 규모 플래그십 병원 개원	19
WHO-칭화대학,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2년 협력 체계 출범	19

06

글로벌 행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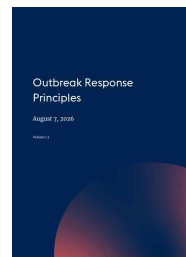
FOCUS

글로벌 백신 R&D 거버넌스 재정비: CEPI 발생 대응 원칙과 100일 미션 가속화

1 CEPI 발생 대응 원칙 발표 배경과 자원 조달 구조

CEPI 발생 대응 원칙 발표 배경

-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은 8월 11일 감염병 발생 시 CEPI의 개입 범위와 판단 기준을 규정한 「발생 대응 원칙(Outbreak Response Principles)」을 발표함
- 이는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 시 과학적 엄밀성과 대응 속도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CEPI의 공식 입장을 최초로 문서화한 것으로, CEPI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2017년 CEPI 설립 이후 COVID-19 대응을 거쳐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Sudan virus) △분디부고 에볼라 바이러스(Bundibugyo virus) △마버그(Marburg) △엠폭스(MPOX) △리프트밸리열(Rift Valley fever) 등 다수의 고위험 감염병 발생 사례에 반복 대응해온 경험이 이번 원칙 문서화의 계기가 됨
-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2026년 5월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으로 선언한 분디부고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이 8월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원칙이 발표되면서, CEPI가 해당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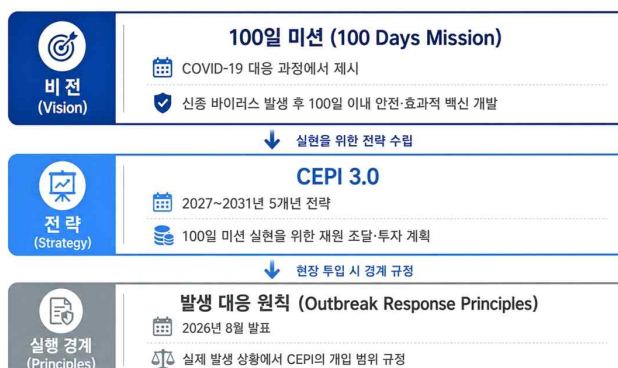


▶ <관련 내용 보기>

100일 미션 실현을 위한 CEPI 3.0의 자원 조달 구조와 발생 대응 원칙의 연계성

- CEPI의 핵심 목표인 「100일 미션(100 Days Mission)」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 위험이 있는 신종 바이러스 발생 후 100일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CEPI는 당시 지원한 연구개발 투자가 신속 대응 역량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함
- 100일 미션을 상시 가동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CEPI는 2027년~2031년 5개년 전략 「CEPI 3.0」을 수립했으며, 총 36억 달러(한화 5조 3,907억 원) 중 11억 달러(한화 1조 6,471억 원)를 확보하고 신규로 25억 달러(한화 3조 7,435억 원)를 각국 △정부 △자선단체 △민간에 요청하고 있음
- 이처럼 CEPI 3.0이 100일 미션 실현을 위한 자원·인프라 구축 전략이라면, 8월 발표된 발생 대응 원칙은 구축된 역량이 실제 발생 현장에 투입될 때의 개입 경계를 규정한 지침의 성격을 지님

| CEPI 대응 체계 3단 구조



2 CEPI 역할 경계와 CEPI 3.0 추진 구조

발생 대응 원칙에 따른 CEPI의 역할 경계

- 발생 대응 원칙은 CEPI의 역할을 ①국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율자(Convener) ②백신 연구개발 관련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고문(Technical Advisor) ③신속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옹호자(Advocate)로 한정함
- 또한, 시장허가보유자(Market Authorization Holder, MAH)* 지위를 보유하지 않고 백신 개발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 지지 않으며 각국 정부의 의료대응수단 활용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함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품목허가를 받아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통·판매에 대해 최종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
- 이는 CEPI가 한정된 자원을 백신 연구개발 지원에 집중해 대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백신에 대한 규제 승인과 실제 국민 대상 배포 권한은 각국 정부에 남겨둌으로써 국가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 대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원칙임

| CEPI의 3대 기능과 역할 경계

CEPI가 수행하는 역할	CEPI가 갖지 않는 권한
 ① 조율자 (Convener) 국가·기관 간 협력 촉진	 시장허가보유자(MAH) 지위 미보유 품질·안전성·유통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 없음
 ② 기술고문 (Technical Advisor) 백신 연구개발 관련 전문 자문 제공	 개발사 법적 책임 미대신 백신 개발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 지지 않음
 ③ 옹호자 (Advocate) 신속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자료] CEPI②, CEPI③

CEPI 3.0의 3대 추진축과 대상 범위

- CEPI 3.0은 100일 미션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기존·신흥 위협에 대응하는 백신 ②신속 대응형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플랫폼 기술 ③연구·제조·규제 역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 3대 축으로 구성되며, 이 중 백신 부문에는 총 16억 달러(한화 2조 3,959억 원)가 배정되어 있음
- 이러한 대응 체계는 개별 병원체가 아닌 바이러스군 단위로 설계되어 WHO 지정 최고위험 바이러스군의 약 75%**를 포괄하며, 이는 병원체군 전반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과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려는 접근에 해당함
**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Lassa fever) △니파(Nipah) △MERS △SARS △엠볼스 △CCHF △치쿤구니야(Chikungunya) 등
- 다만 △오르토믹소바이러스과(Orthomyxoviridae) △플라비바이러스과(Flaviviridae) △피코르나바이러스과(Picornaviridae) 등 일부 주요 바이러스군은 현재 CEPI 3.0 계획 범위 밖에 있어, 완전한 재원이 확보될 경우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전략적 공백으로 지목됨

| CEPI 발생 대응 원칙 및 CEPI 3.0 핵심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추진축 ① 백신	기존·신흥 위협 대응, 16억 달러(한화 2조 3,959억 원) 규모	우선 병원체 대응 역량 지속 확충
추진축 ② 플랫폼 기술	신속 대응형 백신 개발·생산 기술 가속화	100일 미션 실행 인프라 구축
추진축 ③ 네트워크	연구·제조·규제 준비태세 통합	하나의 글로벌 대응 시스템 지향
대상 범위	WHO 최고위험 바이러스군의 약 75% 포괄	오르토믹소·플라비·피코르나 계열은 공백

[자료] CEPI②, CEPI③

3 산업·시장 파급효과

백신 개발 생태계의 자금 조달 경로 다변화

- CEPI는 2025년 한 해 동안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COVID-19 △니파 △엠폭스 등 백신 후보물질을 지원하며 백신 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대형 제약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의 대학 및 바이오벤처(Bio-Venture)로까지 확산*되면서 개별 연구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자금 조달 경로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젠 바이오로지스(Afrigen Biologics)에 620만 달러(한화 93억 원) 지급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케냐 임상시험에 370만 달러(한화 55억 원) 지급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에 1,250만 달러(한화 187억 원) 지급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Colorado State University)에 950만 달러(한화 142억 원) 지급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C Davis)에 2,800만 달러(한화 419억 원) 지급 등

- 이는 자체 임상·생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연구기관도 국제 백신 연구개발 자금을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고 있으며, 신약 개발과 유사한 단계별 자금 지원 체계가 감염병 백신 분야에도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함

신속 생산 역량 및 CDMO 시장 확대

- CEPI 지원 하에 에티오피아에서 마버그 백신 임상 2상이 신속히 개시되었고, 사전 확보된 생산 파트너십을 통해 리프트밸리열 백신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40만 회분이 16일 만에 생산되는 등 발생부터 대량생산까지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가 확인됨
- 이러한 실적은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및 신속 생산 플랫폼 보유 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발생국 현지 생산 역량과 선진국 규제·자금 지원을 연결하는 국제 분업형 생산 구조가 부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승인 백신 부재 상황이 부각하는 플랫폼 기술의 전략적 가치

-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자,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는 승인된 백신이 없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CEPI에 5,000만 달러(한화 748억 7,150만 원)를 긴급 지원함
- WHO가 PHEIC를 선언한 해당 바이러스는 승인된 백신이 없어 미국 제약사 머크(Merck)가 개발한 백신인 에르베보(Ervebo)의 교차 사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에르베보는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Zaire ebolavirus)에 특이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분디부교형에 대한 실제 임상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 이처럼 병원체별로 개별 개발된 백신이 변이·아형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항원만 교체해 여러 변이·아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바이러스마다 별도로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변이와 아형에 공통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 기술로 투자 중심축을 이동할 필요성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음

| CEPI 대응 실적에 따른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

분야	변화 내용	의미
백신 개발사 및 바이오벤처	대학·중소기관 대상 연구개발 자금 지원 경로 확대 (건당 수십억~수백억 원)	신약 유사 개발 경로의 자금 접근성 확대
CDMO 및 생산 인프라	리프트밸리열 백신 16일 내 40만 회분 생산 등 신속 생산 실적 확보	긴급 대량생산 역량 기업의 시장 부상
플랫폼 기술 기업	분디부교형 등 승인 백신 부재 발생 대응 수요 증가	범용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전략적 가치 부각

[자료] CEPI④, Pharmaceutical Technology, CEPI⑤, UC Davis, CEPI⑥

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재원 확보의 구조적 제약

- CEPI 3.0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25억 달러(한화 3조 7,435억 원)가 필요하나 2026년 8월 현재까지 이 중 상당액이 미확보 상태이며, 국가별 재정 여건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기어 규모와 시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2년~2026년 추진된 CEPI 2.0 중간점검 결과에서도 일부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가 목표 기간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COVID-19 팬데믹 종료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과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은 100일 미션을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CEPI가 특정 국가와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된 자금 조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발생 초기 대응의 과학적·제도적 한계

- 발생 대응 원칙은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백신 유효성을 상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디부고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승인된 백신·치료제가 없는 경우 대응 속도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함
- 또한, CEPI가 MAH 지위나 개발사 면책을 제공하지 않는 역할 경계를 유지함에 따라 실제 규제 승인과 현장 배포 속도는 각국 보건당국의 행정 역량과 정치적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향후 전망: 100일 미션 상시화와 국제 표준화 논의

- CEPI는 발생 대응 원칙을 고정된 규범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전 대응 경험을 축적하며 학습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 CEPI 3.0이 완전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행될 경우 100일 미션이 상시 가동 가능한 운영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COVID-19 발생 후 100일 이내에 백신이 확보되었다면 8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모델링 결과가 이러한 상시화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향후 CEPI와 각국 △보건당국 △규제기관 △제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고도화될수록, 발생국 현지의 임상·생산 역량과 선진국의 규제·자금 지원 역량을 연결하는 국제 분업 구조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CEPI, 2026.08.11.;WHO, 2026.08.;CEPI, 2023.10.24.;CEPI, 2026.08.;CEPI, 2026.02.13.;질병관리청, 2026.05.17.;CEPI, 2026.08.;CEPI, 2026.08.07.;CEPI, 2026.02.13.;CEPI, 2026.07.;Pharmaceutical Technology, 2025.01.21.;CEPI, 2021.08.06.;UC Davis, 2023.09.14.;CEPI, 2026.06.12.;CNBC Africa, 2026.08.20.;CEPI, 2025.02.07.;The Lancet, 2024.11.



덴마크, 제약 수출 호조로 2026년 GDP 성장 전망 3.7%로 상향

Denmark raises 2026 GDP growth forecast to 3.7% on strong pharmaceutical exports

- 덴마크 정부가 8월 27일 발표한 경제조사보고서(Økonomisk Redegørelse)에서 2026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성장 전망치를 5월 전망치 2.7%에서 3.7%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출시를 포함한 제약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덴마크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장관은 덴마크 경제가 현재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으며, 2026년~2027년 물가상승률은 모두 2%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덴마크의 제약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은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수요 급증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짐

[The Danish Dream, 2026.08.27.;Finimize, 2026.08.27.]



미국, 중소 바이오텍 대상 메디케이드 최혜국 대우 약가 2차 협정 추진

U.S. prepares second round of Medicaid MFN drug-pricing deals targeting mid-size biotech companies

- 미국이 8월 31일을 목표로 중소 바이오텍(Biotech)들과 메디케이드(Medicaid)* 약가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2차 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 등 17개 대형 제약사가 1차 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 미국 연방·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프로그램

** 특정 국가나 기업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

- 정부는 MFN 프레임워크가 향후 10년간 연방·주 정부에 643억 달러(한화 962조 2,249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이 MFN 약가 협정 대상을 중소 바이오텍으로 확대하면서 대형사와의 협상력 격차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글로벌 의약품 가격 정책의 미국 주도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PharmExec, 2026.08.26.;Yahoo, 2026.08.27.]



미국 상원의원, 연방 의료자금으로 중국산 의료기기 구매 금지 촉구

U.S. Senator calls for ban on federal healthcare funds for Chinese-made medical devices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연방 의료자금을 지원받는 병원·의원이 중국산 의료기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금지 조치를 촉구했으며, 중국산 의료 데이터 관련 외국 간첩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제안함

*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

- 이번 촉구의 배경으로 중국산 환자 생체신호 감시장치 '콘텍 CMS8000(Contec CMS8000)'에서 인터넷 연결 시 환자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5년 1월 관련 안전 경고를 발령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무역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해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해 의료기기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감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Daijiworld, 2026.08.26.;News on Air, 2026.08.26.]

**인도, 대일 무역 불균형 심화 속 제약 규제 장벽 해소 촉구**

India urges Japan to address pharmaceutical regulatory barriers amid widening trade deficit

- 인도의 2025~2026 회계연도 대일 무역적자가 154억 달러(한화 23조 660억 원)로 확대됐으며,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이 도쿄(Tokyo)를 방문해 일본의 엄격한 제약 등록 절차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해소를 촉구함

* 관세 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엄격한 △인증 △검사 △라벨링 요건 등이 포함됨

-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는 일본의 규제·인증 요건과 자국산 제품 선호 경향이 인도 의약품·철강 등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양국은 규제 조화와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확대를 핵심 해결 과제로 논의함
- 양국은 전통적 양자 무역 확대의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아프리카 인프라·자원 시장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인도-일본-아프리카 협력 이니셔티브(India-Japan for Africa Initiative)'를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새로운 협력 거점 구축 전략으로 주목됨

[Whalesbook, 2026.08.26.:New Indian Express, 2026.08.28.]

**인도 제약사, 미국 제네릭의약품 관세 현실화 가능성 낮다고 판단**

Indian pharma firms see limited likelihood of U.S. generic drug tariffs materializing

- 미국이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제조사에 2028년부터 100%, 2029년에는 200%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인도 제약사 선 파마슈티컬(Sun Pharmaceutical) 및 닥터 레디스 연구소(Dr. Reddy's Laboratories) 등은 미국 내 생산 이전보다 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음
- 아시아 5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의 평균 상각 전 영업이익률(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Margin, EBITDA Margin)*이 약 22%에 불과해 관세를 흡수할 여지가 없으며, 관세 부과 시 미국 처방약 지출이 8%~15% 증가하거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세 발효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임

*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실질 영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 실제로 닥터 레디스 연구소는 2025년 3월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미국 내 제네릭의약품 공장을 폐쇄한 바 있어,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될 전망이다

[Economic Times, 2026.08.24.:Business Standard, 2026.08.24.]

**스위스-중국, FTA 개정 협상 타결 ... 스위스 수출품 99.8% 무관세 추진**

Switzerland and China conclude FTA optimization negotiations targeting 99.8% duty-free Swiss exports

- 스위스와 중국이 8월 20일 2013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스위스 수출품의 약 99.8%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중기적 목표로 설정했고 협정 발효 즉시 77.5%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
- 스위스 △기계 △제약 △화학 업계 등이 최대 수혜 산업으로 지목됐으며 현재 중국산 제품은 스위스에 거의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스위스 수출품의 약 50%만 무관세 혜택을 받는 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 협상은 타결됐으나 계약 문서 법리 검토 및 스위스-중국 국내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서명은 2026년 중으로, 발효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위스 제약·화학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S-GE, 2026.08.21.:Caliber, 2026.08.22.]



미국,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과잉생산 관세 7.5% 부과 검토

U.S. eyes 7.5% overcapacity tariffs on Chinese goods ahead of Xi-Trump summit

- 미국이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기반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산 제품에 7.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방안은 7월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와 합산해 대중 관세를 약 20% 수준으로 복원하는 효과를 가짐

*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과잉생산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무역법 301조 기반으로 관세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양국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무역 휴전 연장도 논의 중임

**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법률

- 관세 세부사항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미중 간 관세 재구축 과정이 의약품·의료기기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Business Times, 2026.08.25.;Yahoo Finance, 2026.08.25.]



캐나다, 미국 무역 협상 중단 및 대미 보복 관세 부과 선언

Canada suspends U.S. trade talks and announces retaliatory tariffs on American imports

- 캐나다 총리가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해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히고 캐나다 대표단에 귀국을 지시했으며, 9월 8일부터 약 200억 달러(한화 29조 9,460억 원)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달러 대 달러(Dollar for Dollar)*’ 원칙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함

*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금액 규모로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보복 관세 대상은 △금속 제품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장비 △제지 제품 △전자제품으로, 캐나다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8월 22일 자정 캐나다산 특정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고 밝혔음
- 협상 결렬과 보복 관세 부과로 미국·캐나다 통상 갈등이 전면화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를 포함한 북미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Mezha, 2026.08.22.;NPR, 2026.08.25.]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제약 분야 협력 확대 논의

Uzbekistan and Tajikistan expand pharmaceutical sector cooperation

-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개발청(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과 타지키스탄 보건사회보장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제약 비즈니스 포럼(Uzbekistan - Tajikistan Business Forum on Pharmaceuticals)’에서 △의약품·의료기기 현지화 생산 △수출 확대 △공동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제약 클러스터 바이오파마 시티(BioPharma City) 생산시설을 시찰했으며, 양국 제약사 간 회의를 통해 타지키스탄 △시장 진출 △기술 이전 △공동생산 프로젝트 방안을 협의함
- 이번 포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제약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내 제약 허브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UzA, 2026.08.25.;Asia-Plus, 2026.08.25.]

01 스탠퍼드대학 심혈관연구소, 인체 유래 모델·AI 통합으로 신약 개발 실패율 감축 방안 제시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심혈관연구소(Stanford Cardiovascular Institute) 소장은 임상 단계에서 반복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유래 인체 모델과 AI를 하나로 묶은 신접근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함



* 동물실험에 의존하지 않고 인체 유래 세포·조직이나 컴퓨터 모사를 활용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는 대체 시험법을 총칭함

- 연구소 소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선행 연구에서 신약 개발의 실패율은 92%로 집계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독성과 임상시험에서의 유효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는 성인 환자의 시료에서 만들어져 해당 환자의 유전적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개인별 질환 기전과 치료 반응 차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음

** 성체 세포를 초기 상태로 되돌려 여러 종류의 세포로 다시 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줄기세포

- 연구소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크리스퍼(CRISPR)**** 기반 기능유전체학 △AI를 iPSC 모델과 결합해 여러 환자에서 유래한 세포를 한 번에 평가하는 배양접시 속 임상시험(Clinical Trial in-a-Dish, CTiD)***** 방식으로 약물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사전에 가려내는 접근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됨

*** △단일세포 분석 △전사체 △단백체 △후성유전체 등 여러 층위의 생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법

**** 유전체의 특정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로, 질환 관련 유전자의 기능을 켜거나 꺼서 병리 기전을 규명하는 데 활용됨

*****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환자 유래 세포에서 약물 반응과 독성을 평가해 실제 임상시험 결과를 사전에 가능하는 방식

- 다만 세포 배양 조건과 분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험실 간 편차를 줄이는 표준화 작업과 임상 결과 대비 예측력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규제 기관의 수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PubMed, 2026.01.;Drug Target Review, 2026.08.11.]

02 예일대 의과대학, 임상·기술 잇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 AI 보건과학 석사 과정 신설

-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Yale School of Medicine)이 임상과 기술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2년 과정의 의료 AI 보건과학 석사(Master of Health Science in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MHS)* 과정을 신설함

*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 AI 도구의 개발과 도입 역량을 가르치는 학위 과정

- 의료 현장에서는 도구를 만드는 공학자와 이를 사용하는 임상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기술이 실제 진료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데이터로 개발된 패혈증(Sepsis) 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진료 환경에서 부정확한 예측 결과를 반복적으로 산출해 임상가의 신뢰를 잃은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 환자의 △진료 기록 △처방 △검사 결과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기록 시스템

- 과정은 ①프로그래밍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임상 트랙과 컴퓨터과학 ②데이터과학 배경을 갖춘 기술 트랙으로 나뉘며, 두 트랙 모두 △AI의 수학적 기초 △의료 데이터의 전산적 기초 △의료제도와 규제·윤리 △실패 지점을 다루는 실습 과목을 공통 필수로 이수하도록 설계됨

- 강의는 사전 녹화 영상과 실시간 화상 토론으로 진행되고 입학 시점과 1학년 1월 두 차례 대면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를 수행함

*** 학위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해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최종 성과물 성격의 독립 연구 과제

- 의료기관이 최고의료AI책임자와 AI 규제 전문가 같은 직책을 신설하는 흐름 속에서, 기술과 임상을 매개하는 역량이 개인의 경력에 의존하던 단계를 넘어 정규 학위 체계로 제도화되는 전환점으로 보여짐

[Yale School of Medicine, 2026.08.10.;Yale Online, 2026.08.19.]

03 오하이오주립대학, AI 신약 발굴 이니셔티브 ‘벅아이 바이오런치’ 출범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The Ohio State University)가 임상·유전체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신약 발굴 이니셔티브 ‘벅아이 바이오런치(Buckeye BioLaunch)’를 출범하여, 오하이오 지역의 생명과학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함
- 이번 사업은 ①웁스너 메디컬 센터(Wexner Medical Center) ②오하이오주립대 종합 암 센터-아서 G. 제임스 암 병원과 리처드 J. 솔로브 연구소(Ohio State Comprehensive Cancer Center-Arthur G. James Cancer Hospital and Richard J. Solove Research Institute, OSUCCC-James) ③의과대학 ④약학대학 4개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묶은 대학 차원의 협력 체계로, 대학 내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에 거점을 두고 운영됨
- 벅아이 바이오런치는 유전체 분석에서 표적 발굴과 후보물질 도출을 거쳐 최종 의약품에 이르는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며, 웁스너 메디컬 센터가 투자한 ‘오하이오 게놈 헬스(Ohio State Genomic Health, OSGH)*’ 사업의 자료를 AI 분석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

* 환자의 임상 기록과 유전체 정보를 대규모로 축적해 연구와 진료에 함께 활용하도록 구축한 웁스너 메디컬 센터의 데이터 사업

- 연간 10건~20건의 AI 기반 후보물질 선별 과제를 지원하며, 성과는 △물질특허(Composition-of-Matter Patent)** △기술이전 계약 △창업 △임상시험 진입이라는 정량 지표로 측정할 방침임

** 화합물의 구조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 신약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 대학이 AI 교원 채용과 학제 간 AI 연구 조직 ‘AI(X) 허브(AI(X) Hub)***’ 구축을 병행하는 가운데,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개별 연구실의 성취에 머무르던 단계를 넘어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성과지표 체계로 전환되는 사례로 여겨짐

*** 헬스케어를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의 AI 연구와 혁신을 한데 모아 지원하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학제 간 연구 거점

[Ohio State News, 2026.06.30.; Ohio Tech News, 2026.08.12.]

04 오라클 헬스, AI 기반 ‘환자 포털’ 미국 정식 출시

- 미국 데이터·클라우드 기업 오라클(Oracle)의 헬스케어 부문 오라클 헬스(Oracle Health)가 의학 용어를 환자 친화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AI 기반 ‘환자 포털(Patient Portal)*’을 미국에서 정식 출시하며,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환경 구축에 나섬

ORACLE
Health

* 환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 기록 조회와 예약, 의료진 문의를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디지털 창구

-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의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포털은 오라클 헬스의 전자건강기록(EHR)과 완전히 연동되어, 환자가 별도로 시스템에 자료를 옮기지 않고도 진료 환경 안에서 답변을 받도록 설계됨

**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 학습해 여러 작업에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규모 AI 모델

- 환자는 △진단명·검사 결과·치료 선택지의 환자 친화적 해설 △콜레스테롤 추이 등 건강 상태 질의 △과거 진료 이력 기반 예약 추천 기능을 포털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오라클 헬스는 AI가 진단이나 치료 권고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고, AI가 생성한 내용은 의료진 기록과 혼동되지 않도록 화면에서 별도로 표시됨
- 경쟁사인 미국 의료정보기술 기업 에픽 시스템스(Epic Systems)가 병원용 전자건강기록(EHR) 시장에서 오라클의 두 배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한 상황에서, 전자건강기록 경쟁의 기준이 의료진 업무 효율에서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의 완성도로 옮겨가고 있음

[Fierce Healthcare, 2026.08.12.; Healthcare Dive, 2026.08.12.]

05 엔트그룹, 의료진용 AI 워크스테이션 'AQ 포 닥터' 출시

- 중국 디지털기술 기업 엔트그룹(Ant Group)이 기존 의료진 플랫폼 하오다이푸 포 닥터(Haodf for Doctor)를 AI 워크스테이션 'AQ 포 닥터(AQ for Doctor)'로 전면 개편해 출시하여, 자국 의료진 500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에 나섬
 - 이번 플랫폼은 이용자 1억 명 이상을 확보한 엔트그룹의 헬스케어 앱 'AQ'와 완전히 연동되며, AI가 먼저 답변하고 의사가 검증하는 방식을 피부과에서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등 16개 진료과로 확대해 환자 문의를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자동 연결함
 - 핵심 기능은 ①진료 전 문진과 진료 후 추적 관리를 24시간 수행하는 'AI 닥터 에이전트(AI Doctor Agent)' ②음성이나 문자로 의학 지식을 즉시 검색하는 'AI 메디컬 어시스턴트(AI Medical Assistant)' 두 가지로 구성됨
 - 엔트그룹은 네덜란드 의료정보 기업 볼터스 클루버(Wolters Kluwer)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의료진에게 6,000만 건 이상의 의학 문헌과 14만 건 이상의 의약품 라벨 정보를 제공함
- * 개별 의사의 경험이나 관행이 아니라 임상 연구로 검증된 최선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를 결정하는 의학 방법론
- 이번 개편으로 병원이 플랫폼에서 자체 온라인 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온라인 진료가 개별 의료진의 참여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의료기관 단위로 편입되는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관측됨



[The Jerusalem Post, 2026.08.05.;Digital Health News, 2026.08.06.]

06 미국 병원, AI 스케줄링 시스템으로 인력 배치 및 수술실 운영 개선

- 미국 병원들이 △환자 예약·진료 불참 이력 △의료진 근무 시간·전문 분야 △병상·수술실 가동 현황을 종합 분석해 인력 배치와 진료 예약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AI 스케줄링 시스템(AI Scheduling System)을 도입하면서, 의료 AI 활용이 진료 보조를 넘어 병원 운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도입은 예약 체계 개선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은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와 협력해 진료 기록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영상검사 필요 여부와 진료 예약 가능 시점을 판단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수술실을 배정함
 - 미국 헬스테크 기업 타이거커넥트(TigerConnect)는 인력 운영에도 같은 접근을 적용하여, 휴가 신청과 공휴일 근무 현황에서 인력 공백을 찾아낸 후 근무 교대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휴가를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공급함
 - 이러한 자동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것은 현장 데이터의 정확도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교 병원(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Health, MUSC Health)은 앰비언트 AI(Ambient AI)*로 수기 입력 대비 6배 정확한 기록을 확보해 전체 수술의 28%가 30분 이상 짧게 예약되고 20%는 반대로 길게 잡혀 있었음을 확인함
- * 별도 조작 없이 현장의 소리와 영상을 상시 인식해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AI 기술
- 컨설팅 업계는 향후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진료 기록에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해 예약과 사전 승인 절차까지 자동 처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업무 흐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AI

[Sheba Global, 2026.07.28.;Mobi Health News, 2026.07.29.]

07 애보트-구글 헬스, 연속혈당측정기와 AI를 결합한 대사건강 관리 협력 체결

- 미국 의료기기 기업 애보트(Abbott)와 미국 빅테크(Bigtech) 기업 구글(Google)의 헬스케어 부문 구글 헬스(Google Health)가 혈당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대사건강 (Metabolic Health)*을 관리하는 다년간 협력을 체결하여, 일상 습관과 건강 상태를 함께 파악하는 소비자용 서비스 구축에 나섬



*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등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며 몸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상태

- 협력의 핵심은 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 CGM) 링고(Lingo)이며, 해당 기기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됨
- 링고의 혈당 데이터는 구글 헬스 앱에 통합되어 다른 건강·웰니스(Wellness)** 지표와 함께 한 화면에서 조회되고, 구글의 헬스 코치(Health Coach) 기능이 이를 근거로 △영양 △활동 △수면 △회복에 관한 맞춤형 권고를 제시해 이용자가 일상 습관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확인하도록 지원함
- ** 질병 치료가 아니라 △신체 △정신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 양사는 △연속혈당 △웨어러블(Wearable) △임상검사 △설문 데이터를 통합하는 대규모 실사용 대사건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활동 △수면 △대사건강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구글 헬스의 AI 코칭 기능과 링고의 후속 제품 개발에 반영할 방침임
- 미국에서 당뇨 전단계 성인 1억 1,500만 명 중 80%가량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협력은 혈당 측정을 환자의 치료 수단에서 일반 소비자의 예방 수단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Abbott, 2026.08.11.; Medical Device Network, 2026.08.12.]

08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FDA 허가 1,500건 돌파 ... 규제 경로 재편

- 2026년 4월 기준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68%가 2022년 이후에 집중되면서 관련 규제 경로가 재편되고 있음

*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진단 △치료 △예방 등 의료 목적을 수행하는 제품

- 분야별로는 영상의학이 전체 허가의 76%를 차지해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심혈관 분야가 10%로 뒤를 이었고 신경과 분야는 4% 수준에 그침
- 초기에는 비교 대상 제품이 없어 드 노보(De Novo)** 경로로 허가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해당 방식으로 신설된 분류가 비교 대상으로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동등성을 근거로 하는 510(k)*** 경로 활용이 확대됨

** 기존에 유사 제품이 없는 저·중위험 신규 의료기기에 새로운 분류를 부여하는 FDA의 허가 경로

*** 시판 중인 유사 제품과의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를 받는 FDA의 가장 일반적인 의료기기 허가 경로

- 한편, EU는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에 더해 AI법(AI Act)으로 다수의 AI 의료기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 실제 적용 방식에서는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등 주요국 규제기관은 알고리즘 변경 관리와 시판 후 성능 감시에서 서로 차이를 보임
- 전문가들은 영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기가 암 진료에서 먼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대표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와 임상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The Journal of mHealth. 2026.08.14.; BioSpace. 2026.08.17.]

09 글로벌 신약 개발 업계, LC-MS 워크플로 자동화로 분석 처리량 확대

- 글로벌 신약 개발 업계가 전임상 분석(Preliminary Analysis)에 쓰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워크플로(Workflow)를 자동화해, 분석 처리량을 확대하면서 데이터 확보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 혈액 등 생체 시료에서 목표 물질을 분리한 뒤 질량을 측정해 성분과 농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분석 기법

- 미국 위탁연구개발기관(Con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CRDO)** 큐피에스(QPS)는 시료 플레이트(Plate)를 자동 교체하는 장치를 도입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장시간 분석을 연속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 중에도 시료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장비 가동률을 높임

** 신약 개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연구 △분석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전문 기관

- 이러한 연속 분석은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Ultra-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HPLC)*** 장비를 기반으로 하며 주사 속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인 결과, 약물 상호작용 시험의 데이터 회신 기간과 용매 사용량이 함께 감소함

*** 기존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료를 흘려보내 분석 속도와 분리 성능을 동시에 높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 그동안 펩타이드(Peptide) 등 큰 분자는 장비 표면에 달라붙어 다음 시료 측정에 영향을 주는 잔류 오염이 문제였으나, 주입구 설계 변경과 세척 프로그램 추가로 전체 분석 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고 해결됨
- 데이터 회신 속도가 위탁연구개발기관(CRDO)의 경쟁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시료 전처리와 세척 절차의 표준화가 분석 처리량과 품질을 함께 확보하는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UHPLC >

[The Scientist, 2026.08.14.;QPS, 2026.08.22.]

10 글로벌 제약사, 수술 후 통증 치료제 52건 개발 ... 비마약성 전환 가속

- 미국 생명과학 시장조사기관 델브인사이트(DelveInsight)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45곳 이상이 수술 후 통증 치료제 52건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방향이 비마약성 진통제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남
-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다중모달 진통(Multimodal Analgesia)* 방식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상처 회복 지연 △거동 제한 △입원 기간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재편 배경으로 작용함

*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진통제와 국소마취 기법을 함께 적용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

- 후보물질 가운데 12건 이상이 임상 2상과 3상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주요 작용 기전으로는 △Nav1.8 전압의존성 나트륨채널 억제(Nav1.8 Voltage-Gated Sodium Channel Inhibitor)** △안지오텐신 2형 수용체 길항(Angiotensin Type 2 Receptor Antagonist) △TrkA 수용체 분해(TrkA Receptor Degradator) 등으로 나타남

**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에 주로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전

- 또한, 미국 제약사 애브비(AbbVie)가 2026년 4월 중국 제약사 하이스코 파마슈티컬 그룹(Haisco Pharmaceutical Group)의 Nav1.8 억제제 2종을 최대 7억 500만 달러(한화 1조 557억 원) 규모에 도입했고 미국 바이오텍(Biotech) 라티고 바이오테라퓨틱스(Latigo Biotherapeutics)의 경구용 Nav1.8 억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 트랙(Fast Track)*** 으로 지정됨

*** 중대한 질환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물질에 대해 FDA가 심사 협의와 자료 제출 절차를 앞당겨 주는 제도

- 마약성 진통제 의존을 줄이려는 임상 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수술 후 통증 치료가 단기 처방 중심에서 장기 지속형 비마약성 치료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짐

[GlobeNewswire, 2026.08.12.;Yahoo Finance, 2026.08.12.]

11 미국 상원,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개혁 법안 ‘서스테인 340B’ 발의

- 미국 상원이 취약계층 진료 의료기관의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340B Drug Pricing Program)* 개혁 법안 ‘서스테인 340B(SUSTAIN 340B)’를 발의함

* 1992년 도입된 제도로, 메디케이드(Medicaid)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저소득·무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 외래 처방 의약품을 할인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대상 기관은 할인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보험에서 정상 수가로 상환받아 그 차액을 확보하는 구조이며, 2025년 340B 구매액은 1,000억 달러(한화 149조 7,430억 원)로 전년 814억 달러(한화 121조 8,908억 원) 대비 23% 증가함
- 2020년 이후 일부 제약사가 340B 처방 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약국(Contract Pharmacy)**의 수와 종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농촌 지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려 왔고,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은 선할인 대신 정가로 구매한 뒤 환급받는 리베이트 모델(Rebate Model) 시범사업을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임

** 340B 대상 기관이 자체 약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 약국과 계약해 처방 조제를 위탁하는 방식

- 법안에는 △계약약국 이용 차단 금지 △340B 환자의 법적 정의 신설 △리베이트 시범사업의 1년 내 종료 △중복 할인 검증을 위한 독립 정산기구 설치 방안이 포함됨
- 소규모 농촌 필수의료병원의 4분의 3가량이 340B 절감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모델로 전환될 경우, DSH 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 Hospital)***은 연평균 7,200만 달러(한화 1,078억 1,496만 원)를 제약사에 선납한 뒤 환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추산됨

*** 저소득·무보험 환자 비중이 기준치를 초과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재정 보전을 받는 병원

- 리베이트 모델을 허용하는 경쟁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가운데, 할인 혜택의 환자 진료 반영 여부를 추적할 보고 체계 설계 방식이 입법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NACo, 2026.08.07.;Medical Daily, 2026.08.10.]

12 일라이 릴리,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 유럽 최초 영국 허가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경구용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Foundayo)’가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으로부터 유럽 최초로 허가를 받아, 8월 24일 영국 약국에서 민간 처방으로 판매를 개시함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이 처방 대상이며, 저열량 식단과 신체활동 증가를 병행하는 조건이 함께 적용됨
- 파운다요는 펩타이드가 아닌 저분자 화합물이어서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하루 한 번 시간대와 음식·수분 제한 없이 복용하고 냉장 보관도 필요하지 않아 주사형 제품보다 복용 부담을 낮춤
- 용량은 0.8mg에서 시작해 △2.5mg △5.5mg △9mg △14.5mg △17.2mg까지 단계별로 최소 한 달 간격을 두고 증량하며, 부작용으로는 △변비 △설사 △소화불량 등이 알려짐
- 현재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주사제가 주도해 온 비만 치료 시장에서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경구제가 등장하면서 비만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초기 감량 효과에서 장기 복용 유지율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줌



[GOV.UK, 2026.08.10.;The Guardian, 2026.08.24.]

13 올랜도 헬스, 수술 중 출혈량 확인하는 의료기기 ‘블리드ID 배큘 패드’ 상용화

- 미국 비영리 의료시스템 올랜도 헬스(Orlando Health)가 제왕절개를 비롯한 산부인과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량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진공 흡인 방식의 의료기기 ‘블리드ID 배큘 패드(BleedID Vacuum Pad)’를 상용화함
- 수술 중 출혈은 환자의 혈압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의료진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 제왕절개에서도 출혈량 산출과 개입 시점 판단이 오랜 임상 과제로 여겨졌음
- 블리드ID 배큘 패드는 흡수 소재와 진공 흡인 기능을 결합한 체액 수집 장치로 수술대나 처치 후 침대에서 환자 아래에 배치되며, 출혈을 모아 의료진이 손실량을 조기에 파악하고 즉시 개입하도록 설계됨
- 해당 기기는 모체태아의학 전문의와 임상전문간호사가 6년에 걸쳐 개발했으며, 올랜도 헬스 전략혁신팀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과정을 거쳐 미국 위니 팔머 여성·아동 병원(Winnie Palmer Hospital for Women and Babies)에 우선 도입함
- 산후출혈(Postpartum Hemorrhage)**이 분만 전후 모성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번 상용화는 의료기기 개발이 제조사 주도에서 마무리된 단계를 넘어 진료 현장이 직접 설계하고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유망한 초기 아이디어를 선별해 △개발 자금 △전문 인력 △사업화 절차를 집중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

** 분만 후 자궁 수축 부전이나 산도 열상 등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로, 급속히 진행되어 모성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South Florida Hospital News, 2026.08.15.; Sanford Herald, 2026.08.24.]

14 완더크래프트, 자가균형 개인용 외골격 ‘이브’ FDA 허가 획득

- 프랑스 로보틱스 기업 완더크래프트(Wandercraft)가 척수손상 환자의 일상 보행을 지원하는 자가균형 개인용 외골격(Exoskeleton)* ‘이브(Eve)’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WANDERCRAFT 허가를 획득해, 재활 환경에 국한됐던 직립 보행 기술을 가정으로 확장함
- 신체에 착용해 근력과 균형을 대신 지탱하며 보행이나 작업을 보조하는 로봇 장치
- 이브는 전동 관절과 안정화 알고리즘이 균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손잡이나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이동 방향은 휴대용 리모컨으로 조작함
- 적용 대상은 손상 부위와 무관하게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 성인 척수손상 환자이며, 사용 범위는 실내 평면과 테라스 등 건물에 인접한 평지로 제한되고 전문 교육을 받은 동반자의 감독이 필요함
- 허가는 미국 3개 기관 ①제임스 J. 피터스 재향군인 병원(James J. Peters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②케슬러 재단(Kessler Foundation) ③워크 인 뉴욕(Walk in New York)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전신 건강 △심리 상태 △하지 근육 긴장도 △앉은 자세 안정성에서 개선을 경험했다고 밝힘
- 미국 메디케어(Medicare)**는 2024년부터 내구성 의료장비 급여 코드로 개인용 외골격 상환 경로를 마련해 둔 상태로, 회사는 60일~90일 내 급여 대상 편입을 예상하며 9월 17일 미국 시장 출시를 계획함
-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
- 미국 내 마비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골격의 사용처가 병원 재활실에서 환자의 생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급여 인정 범위가 시장 확대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Wandercraft, 2026.08.11.; Medical Device Network, 2026.08.13.]

15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보청 기능 FDA 허가 획득

- 전자기업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Galaxy Buds)’의 보청 기능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해,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보청기(Over-the-Counter Hearing Aid) 시장에 진입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난청 인구를 15억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25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난청은 진단과 관리가 가장 미흡한 건강 문제로 지목되고 있음
 - 허가 대상은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며, 청력 검사 기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로 등록되어 의료용 수준의 검사 결과를 제공함
 - 삼성전자는 2020년 갤럭시 버즈+(Galaxy Buds+)에 개인용 음성증폭기(Personal Sound Amplification Product, PSAP)* 기능을 탑재한 바 있으며, 이번 허가로 단순 음성증폭 기능이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적응증으로 확대됨
- * 난청 치료용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소리 인지를 돕는 기기로,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보청 기능과 청력 검사 기능은 갤럭시 버즈3 프로(Galaxy Buds3 Pro)와 갤럭시 버즈4 프로(Galaxy Buds4 Pro)에 탑재되며, 2026년 4분기부터 미국과 허가를 받은 일부 시장에 순차 적용될 예정임
 - 미국 전자기업 애플(Apple)은 2024년 9월 에어팟 프로(AirPods Pro)로 같은 적응증 허가를 먼저 받았으며, 이번 삼성전자의 허가로 두 기업이 일반 보청기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짐
 - 별도 보청기 착용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이 난청 진단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운데, 일상 기기에 보청 기능이 내장되면서 청력 관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Medical Device Network, 2026.08.14.;Yahoo Tech, 2026.08.14.]

16 리비브, 2030년 뷰티 트렌드 보고서 발간 ... AI 진단 및 바이오텍 부상

- 핀란드 뷰티 테크(Beauty Tech) 기업 리비브(Revieve)가 ‘뷰티의 미래: 2030년 뷰티 트렌드(The Future Face of Beauty: 2030 Beauty Trends)’ 보고서를 발간해, 화장품 산업의 중심이 제품 판매에서 AI 진단과 바이오텍(Biotech)을 활용한 소비자별 맞춤 처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함
- 보고서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의 브랜드와 유통기업 경영진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의 구매 기준이 효능을 넘어 성분의 근거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까지 확대됨
- AI 피부 진단이 제품 구매의 첫 단계로 자리잡았고, 영국 뷰티 브랜드 트로픽 스킨케어(Tropic Skincare)는 리비브의 기술을 도입한 AI 피부 진단으로 5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해 응답자의 40%가 복합성 피부라는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함
- 원료 분야에서는 식물 추출 방식이 △실험실 배양 펩타이드(Lab-grown Peptide) △미생물 발효 활성 성분 △피부 세포와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펩타이드(Neuropeptide)로 대체되고 있으며, 줄기세포 유래 물질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술은 고가 스킨케어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별로 △중남미는 저비용 AI 의료 연계 △아시아태평양은 참여 유도형 디지털 경험 △유럽은 소비자 교육과 지속가능성 △미국은 웰니스 중심 맞춤화를 우선하는 등 시장별 우선순위가 갈리는 가운데, 확장 가능한 기술과 현지 특화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이 향후 경쟁의 기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Cosmetics Business, 2026.08.06.;Happi, 2026.08.14.]

17 베트남 땀안종합병원, 미국 대비 10분의 1 비용에 외국인 암 환자 유치

- 베트남 땀안종합병원(Tam Anh General Hospital)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의 다빈치 Xi(da Vinci Xi)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해 △전립선암 △부인과암 △위장관암 등 수술을 시행하며, 미국 및 싱가포르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
- 54세 미국인 환자는 다빈치 Xi를 이용한 로봇 자궁절제술 후 12시간 만에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으며, 다음 날 퇴원해 로봇수술의 빠른 회복 효과를 확인함
- 67세 캐나다인 환자는 본국에서 전립선암 수술 대기기간이 두 달에 달하자 베트남을 방문해 수술 후 16시간 만에 독립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48시간 만에 퇴원해 신속한 회복력을 보임
- 땀안종합병원은 다빈치 Xi 로봇수술 시스템 2대를 도입해 △비뇨기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1년여 만에 약 500건의 다학제 로봇수술을 시행함
- 또한, 하나의 절개 부위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단일공(Single-Port) 로봇수술과, 두 명의 전문의가 동시에 로봇을 제어해 수술 부담을 분담하는 듀얼 콘솔(Dual Console) 로봇수술을 도입해 수술 시간을 70% 이상 단축함
- 뿐만 아니라 수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장비를 보유한 고난도 치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매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국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베트남을 첨단 의료관광 목적지로 성장시키고 있음



[Vietnam+, 2026.08.12.;DTiNews, 2026.08.12.]

18 튀르키예 레마 덴탈 클리닉, 외국인 환자 프로그램 확대로 프리미엄 임플란트 수요 대응

-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 소재 레마 덴탈 클리닉(Lema Dental Clinic)이 프리미엄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외국인 환자 인프라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함
- 레마 덴탈 클리닉은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4,000㎡ 규모의 전문 치과 시설을 운영하며, 전악수복(Full Mouth Rehabilitation) 및 심미치과(Esthetic Dentistry) 분야에서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2021년~2023년 3년 연속 '유럽 최우수 치과 클리닉(Best Dental Clinic in Europe)' 선정 및 '올해의 최우수 헬스케어 클리닉(Best Health Clinic of the Year)'으로 인정받았으며, 튀르키예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부터 의료관광 인증서(Health Tourism Authorization Certificate)를 취득함
- 인프라 확대에 따라 △외국인 환자 조정부서 △다국어 통역 인력 △VIP 회복실 보유와 △여행 △숙박 △수술 후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됨
- 클리닉은 외국인 환자에게 '완벽을 향한 5단계(5 Steps to Perfection)'라는 원칙을 적용해 △원격 사전 상담 △3D 단층촬영 및 스마일 디자인(Smile Design)* △컴퓨터 유도 수술 계획(Computer-Guided Surgical Planning) △정밀 시술 △사후관리를 순차적으로 제공함
- *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환자의 얼굴 구조와 대칭에 맞춰 최적의 미소 형태를 설계하는 기술
- 추후 디지털 치과 역량과 외국인 환자 지원 인력을 지속 확충해,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치과 임플란트 및 심미치과의 핵심 목적지로 성장할 계획임



[StreetInsider, 2026.08.14.;PR Newswire, 2026.08.14.]

19 글로벌 의료관광, 비용 경쟁에서 진단 속도 및 환자 신뢰 관리로 변화

- 글로벌 의료관광이 기존 비용 경쟁 중심에서 △신속한 진단 △전문의 협진 △회복 지원 역량으로 병원 간 차별화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 환자들은 병원 도착 전부터 의료기록 공유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사전 평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첫 소통 상대 역시 접수 직원이 아닌 전문의인 경우가 많아짐
- 또한,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의료기록 △영상 △병리 소견이 국가 간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전문의의 원격 평가와 다학제팀의 사전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여러 글로벌 의료 프로그램은 의료정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전문의 소견 제공이 가능해졌고, 초진부터 치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도 약 1개월로 단축됨
- 환자들의 관심사도 진료비용보다 △집도의 경력 △유사 시술 수행 건수 △연구·학술 실적 △합병증 관리 체계 △귀국 후 후속 관리 지속 여부로 변경되고 있음
- 실제로 튀르키예 의료서비스 기업 아지바뎀 헬스케어 그룹(Acibadem Healthcare Group)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약 5만 5,000명을 치료하기 전 원격 2차 소견(Second Opinion)*을 약 30만 건 시행함
- * 환자가 진단 및 치료 방향에 대해 담당의 외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구하는 것
- 따라서 향후 병원의 경쟁력은 수술 역량뿐 아니라 △전문의와의 신속한 연계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합병증 관리 △지속적인 후속 관리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rontiers, 2026.07.30.;Newsweek, 2026.08.11.]

20 인도 릴라바티 병원, 카자흐스탄에 첫 글로벌 거점 개설해 의료관광 확대

- 인도 릴라바티 병원 및 연구센터(Lilavati Hospital and Research Centre)가 9월 카자흐스탄에 첫 글로벌 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임
- 카자흐스탄 센터는 중증 세부 전문분야를 다루는 외래센터로 운영되며 △종양학 △심장학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등의 분야에서 △상담 △2차 소견(Second Opinion) △치료계획 수립을 제공함
- 또한, 복합 시술이나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뭄바이 반드라(Bandra)에 위치한 릴라바티 병원 본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이어가게 됨
- 센터 확대는 인도가 글로벌 의료가치여행(Medical Value Travel, MVT)* 목적지로 성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의료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인 50만 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5%를 차지함
- * 환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나 합리적인 비용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이와 함께 휴양이나 관광을 병행하는 활동
- 국가별로는 방글라데시 국적 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소말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순임
- 병원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시설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오만 △모리셔스 △스리랑카로도 진출을 검토하며 중아시아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함
- 릴라바티 병원은 향후 5년간 병상을 약 3,000개 추가할 계획으로, 아마다바드(Ahmedabad)에 300병상 규모 암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뉴델리(New Delhi)와 인도르(Indore)에도 시설을 확대할 예정임



Lilavati Hospital and Research Centre
More than Healthcare, Human Care

21 미국 텔레헬스 기업 민트, 레짓스크립트 인증 획득한 GLP-1 비만 치료 플랫폼 출시

- GLP-1(Glucagon-Like Peptide-1)* 텔레헬스(Telehealth) 시장의 확대로 레짓스크립트(LegitScript)** 인증이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텔레헬스 기업 민트(Meant)가 환자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 상담 서비스를 결합한 GLP-1 비만 치료 플랫폼을 출시하며 해당 인증을 획득함

meant.

* 체내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고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이 작용을 활용한 약물이 당뇨병 치료 및 비만 관리에 사용됨

** 온라인 약국 및 의료서비스 등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심사·인증하는 미국의 제3자 인증기관으로, 미국 정보기술 기업 구글(Google)과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 등 주요 플랫폼 광고 집행 권한도 함께 부여함

- 인증 획득은 경쟁이 치열한 GLP-1 비만 관리 시장에서 규제 준수 역량을 입증하는 동시에, 진단과 처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기술 및 상담 서비스에 주력하는 사업 구조를 반영함
- 처방 권한은 미국 텔레헬스 기업 오픈루프 헬스(OpenLoop Health) 소속 의료진이 담당하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면허를 보유한 의료진이 환자의 GLP-1 약물 처방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다만 GLP-1 약물 처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환자에게도 생활습관 관리 상담과 자체 개발한 영양보충제 키트는 동일하게 제공되며, 해당 키트는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어 임상적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이 청구됨
- 또한, 생활습관 관리 상담이 실제로 환자의 서비스 이용 지속률이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 향후 규정 준수 인증과 상담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 비만 치료 시장에서 인정받을지 여부가 주목됨

[PR Newswire, 2026.08.15.;The Clinical Trial Vanguard, 2026.08.16.]

22 중국, 외국인 환자 유입 급증하며 의료관광 허브로 주목 ... 광저우 암 치료 중심지로 성장

- 중국이 첨단 의료기술과 외국인 환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의 성장이 서비스무역 수출에서도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NHC)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주요 병원들이 2025년 한 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128만 명으로 3년 전 대비 73.6% 증가함
- 특히, 광둥성(Guangdong) 광저우(Guangzhou)시는 글로벌 암 치료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미세침습 치료로 동남아시아에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본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환자는 종재적 치료와 냉동절제술(Cryoablation)을 병행 받았으며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게 됨
- 광저우시는 4월 29일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한 12개 지원 조치 발표 및 국제의료관광서비스센터(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Service Center)* 개설로 △비자 지원 △원격 사전 상담 △국경 간 결제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하고 있음
- * 외국인 환자를 위해 △비자 발급 △진료 예약 △통역 △결제 등 의료관광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광저우시의 원스톱 서비스 기관
- 중국 여행 서비스업체 선브라이트 그룹(Sunbright Group)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이 입국 전 평가부터 퇴원 후 국경 간 후속관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Bastille Post, 2026.08.13.;CGTN, 2026.08.14.]

23 싱가포르 OUE 헬스케어, 중국 선전에 230병상 규모 플래그십 병원 개원

- 싱가포르 OUE 헬스케어(OUE Healthcare)가 중국 선전(Shenzhen) 셴코우(Shekou) 지역에 선전 자오상국제-리포 프린스 베이 병원(Shenzhen China Merchants-Lippo Prince Bay Hospital)을 개원해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 내 의료 입지를 강화함
- 부지 규모는 4만 2,000㎡로 230여 개 병상을 보유하며, OUE 헬스케어의 합작법인인 선전 자오상 리포 병원 매니지먼트(China Merchants Lippo Hospital Management)가 운영함
- 병원은 ①예측(Predictive) ②예방(Preventive) ③맞춤형(Personalised) ④참여형(Participatory)의 4P 원칙에 기반해 진료를 제공하며,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의와 서비스 인력을 마련해 현지 및 외국인 환자를 지원함
- 또한, ①국제의료센터 ②미세침습수술센터(Minimally Invasive Surgery Centre) ③건강관리센터 등 3개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통증관리 △재활 △부인과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주요 진료과를 운영함
- 진료비 청구는 중국의 국가의료보험 제도인 이바오(Yibao)를 통한 직접 청구 외에도 △유 케어(U CARE) △부파 그룹(Bupa Group) △시그나 앤드 씨엠비 생명보험(Cigna & CMB Life Insurance Company) 등 중국·홍콩의 주요 민간 보험사 및 제3자 관리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함
- 향후 OUE 헬스케어는 의료 혁신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Nanshan Government Online, 2026.08.11.; Healthcare Asia Magazine, 2026.08.17.]

24 WHO-칭화대학,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2년 협력 체계 출범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중국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반커 공중보건대학원(Vanke School of Public Health, VSPH)이 지난 7월 △보건위기 대응 연구 △역량강화 △AI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2년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
- WHO 보건비상대비국(Department of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국장은 △과학 △혁신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에 대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함
- 주요 내용은 ①WHO 연구 우선순위에 따른 △팬데믹 대비 △위험평가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 관련 실행연구 ②AI 기반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도구 등 첨단기술 적용 ③공중보건 전문가 대상 △학술교류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워크숍 등 교육 및 역량강화 ④WHO 보건 위기대응 준비 △기준 △지표 △지식산출물 관련 기술협력 등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됨
- 또한, 칭화대학교 반커 공중보건대학원 부학장은 새로운 보건 과제 해결을 위해 AI 등 첨단기술과 학제간 연구, 국제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따라서 이번 협력은 WHO와 칭화대학교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하며, 혁신 지원과 공중보건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HO, 2026.08.06.; 清华大学万科公共卫生与健康学院, 2026.08.12.]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어드밴스드 테라피스 유럽 2026**

Advanced Therapies Europe 2026

개최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행사일정 2026.09.07.~2026.09.09.

행사주제 유럽에 맞춘 기획, 영향력을 발휘하는 설계

주요내용 유럽 최대 세포·유전자치료(CGT) 분야 컨퍼런스로,
△임상개발 △상업화 전략 △규제 △제조 △시장 접근성
등 핵심 세션과 투자 서밋·파트너링 미팅 운영

**메디컬 페어 아시아 2026**

Medical Fair Asia 2026

개최도시 싱가포르

행사일정 2026.09.09.~2026.09.11.

행사주제 더 나은 네트워킹, 더 나은 미팅, 더 나은 비즈니스

주요내용 △진단 △전자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재활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며 △바이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헬스케어 미래 컨퍼런스 운영

**RAPS 컨버전스 2026**

RAPS Convergence 2026

개최도시 미국 샬럿

행사일정 2026.09.15.~2026.09.17.

행사주제 규제 전략·혁신·네트워킹을 위한 글로벌 규제 전문가 모임

주요내용 RAPS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최대 규제
전문가 연례 행사로 △생성형 AI △글로벌 허가 전략
△디지털헬스 △FDA 동향 등 규제 환경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 2026**

BioProcess International(BPI) 2026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9.22.~2026.09.25.

행사주제 바이오프로세싱 혁신을 제조 현실로

주요내용 바이오프로세싱 분야 최대 컨퍼런스 & 전시회로,
△세포주 개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디지털
바이오제조 △CMC 전략 등 6개 트랙과 250개 이상의
기업 전시 운영

**CPHI 밀라노 2026**

CPHI Milan 2026

개최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행사일정 2026.10.06.~2026.10.08.

행사주제 건강 증진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주요내용 166개국 기업이 참가해 △원료의약품(APIs)
△바이오표의약품 생산 △위탁서비스 △완제의약품 등
제약 전 공급망을 아우르며 지속가능성 서밋·리더십
서밋을 병행하는 글로벌 제약 비즈니스의 핵심 플랫폼